

# “당선 소식 뛸 듯이 기뻤지만 시작의 무게감 느껴집니다”

2026광주일보 신춘문예 신인작가 3명 인터뷰

새해 문화계의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는 단연 신춘문예다. 주요 일간지 신년호에 신춘문예 당선자들의 작품, 심사평, 당선소감이 실리면 문학청년, 문학애호가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독자들은 올해는 또 어떤 신인이 당선됐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며 투고자들은 다시 도전의 각오를 다지기도 한다.

기자는 2026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3명 신인작가들과 얼마 전 전화와 지면으로 인터뷰를 했다. 김수현(소설), 권라율(시), 김령희(동화) 3명 신인들의 당선소감을 비롯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었다.

김수현 소설가는 당선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연락을 받고 난 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긴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어떤 울분이랄까, 억눌렸던 뭔가가 몸 밖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다.”며 “양방대에 표류하던 기나긴 나날이 지나가려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라율 시인은 “새해를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게 돼 기쁘다. 신춘문예에 도전한 지 6년째 당선이 되었다.”며 “뜻밖의 소식에 며칠간은 기분이 날아갈 듯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작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으로 연말을 차분히 지냈다”고 전했다.

김령희 동화작가는 “동화를 처음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각자 받고 싶은 문학상을 자기 이름 앞에 ‘호’로 붙이자고 했다. 그때 제 이름 앞에 붙인 것은 ‘신춘’이었다.”며 “우리는 장난처럼 호를 만들었지만 저는 절대 장난이 아니었다. 소망을 이루어어서 기쁘다”고 했다.

신인 작가들의 소감에는 소원하던 바람이 이루어졌다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기다림 끝의 단비와도 같은 느낌이 전해졌다.

“학창시절부터 학업을 마치면 도서관 열람실을 갔다. 마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 지식에 대한 열망보다는 정원을 가꾸듯 마음을 채웠다. 어느 순간 편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연유는 모르겠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게 책무인 것처럼 지치지 않았다. 세상은 다변했지만 읽는 맛과 쓰는 재미만큼은 한결같았다. 그렇게 취미가 작가의 길로 이끌었다.”(김수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시조를 배우게 됐다. 시조의 매력에 흡뻑 빠졌고 등단도 생각했다. 후에 수업이 없어져서 더는 배울 수 없게 되었지만 시조와 시는 한 뿌리라고 생각했다. 다만 현대에 와서 서로 바라보는 곳이 조금씩 달라졌다고 본다. 그 후 모임에서 만난 한 시인의 소개로 시에 입문하게 됐다. 현대시를 공부하면서 문학, 종교, 철학 서적 등을 찾아보고 공부하게 됐다.”(권라율)

“조카가 집에 놀러 오면 누워서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밤새 이야기를 만들었다. 창으로 새어 들어온 빛의 모양을 보고도 이야기를 만들고 “꺄르르” 웃었다. 그때 조카에게 좋은 이야기책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방송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게 동화를 떠올렸다. 만만하게 접근할 분야가 아니었다. 어려운 문학을 해보자,라는 마음에 본격적으로 공부했다.(김령희)

그러나 창작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신춘문예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 명의 시인 작가들은 어떻게 그 같은 불안을 극복했을까.

김수현 소설가는 슬럼프는 매년 신춘 시기였다고 했다. 투고 후 12월에서 1월까지 암담했다는 것이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개운하지 않았고 “몸에 구멍이 뚫린 듯 바람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는 신춘 당선 운과 나을 무렵이면 다시 글을 썼다. “마침 속을 맴도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끼니야만 개운했다. 몸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습관적으로 신작을 썼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뚫린 구멍이 자연히 메워졌다”고 말했다.

권라율 시인은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는 홀로 언저리에 앉은 사람을 생각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사람이라도 내 시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는 “억지로 슬럼프를 극복하려다 보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아닐까 싶었다. 그저 마음을 인정하고 명하게 보내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며 “재미있는 소설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종일 걸어 다니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령희 동화작가는 동화를 쓰기 위해 아동문학을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학교에 들어갔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봤다. 작품, 이론, 논문, 전문서 등등, 특별한 비법은 없었다. 그는 ‘표표가 정해진 이상 그저 묵묵히 공부했다’며 “무엇보다 동화를 쓸 때 ‘아이의 입장이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견지하고 그 지점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설 김수현

표류하던 시간 떠올라 울컥

습관적으로 신작 쓰며 견뎌

스스로 구멍 메워 나갔죠



시 권라율

6년째 도전에 뜻밖의 기쁨

한 명이라도 위로될까 벼텨

객관적 완성도 높은 작품 도전



동화 김령희

‘신춘’ 김령희 소망 이뤄져

아이 입장에서 글쓰기 고민

부끄럽지 않은 작품 쓰겠다

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적성에는 맞지 않았다”며 “퇴근 후 블로그에 서평을 쓰거나 영화감상을 쓰기도 했는데 글이 좋다는 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령희 동화작가는 몇 년째 드럼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의 경험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깊이 생각하고 넓게 느낄 수 있도록 수련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또한 연극을 비롯해 뮤지컬, 음악, 그림,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신인 작가들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 신춘문예 당선은 단지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글을 써도 좋다는 ‘자격증’에 불과하다. 의미 있는 창작활동을 펼치는 것은 전적으로 작가들의 정진 여부에 달려 있다.

“신작을 쓰고 있는 중이다. 단편소설이 잘 마무리 되면 연이어 다음 작품을 써 나갈 생각이며 그간 써놓았던 작품들을 모아 소설집을 발간하고 싶다. 책

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작가로 입지가 다져진다면, 언젠가 글쓰기 수업을 하고 싶다. 소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갈 생각이다.”(김수현)

“우선은 좋은 시를 쓰고 싶다. 일자적으로는 스스로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완성도 있는 작품을 썼으면 한다. 지금은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난다. 쓰다 보면 그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당분간은 평소에 읽고 싶었던 소설이나 수필, 만화책을 읽고 싶다.”(권라율)

“동화는 물론 청소년 소설을 쓰려 한다. 상처 입은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이야기 말이다.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다음 타석에 올라가기 위해 동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저의 경기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김령희)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노아방주’ 시화전...희망의 배를 띠우다



이상재 작 ‘당신 덕분입니다’

31일까지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

무관심·절망 대신 시·예술로 위로와 희망

여기 시를 사랑하는 모임이 있다. 명칭이 문학적이면서도 사뭇 이색적이다. ‘노아방주’(대표 이예성)는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차용한 이름이다. 무너진 가치와 생명의 위기 속에서 희망의 배를 준비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를 사랑하는 모임 ‘노아방주’가 시화전을 ACC 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열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펼치는 이번 전시는 시를 쓰고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의기투합해 시의 향기를 퍼뜨리는 행사이다.

이예성 대표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3~4년 전에 꾸려졌으며 현재 25명 안팎이 참여하고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다양한 시화가 관람객을 맞는다. 화사하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작품들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잠시 내면을 돌아보고 여유를 갖게 한다.

이상재의 시 ‘당신 덕분입니다’는 올 한해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지만

저 멀리 은근슬쩍 다가오는 봄기운을 느낄 수도 있다. “하늘가에 땀 마을 서로 속삭이듯 눈짓합니다. 조용히 거니는 길가엔 영롱한 마음뿐입니다. 안개에 땀 마음은 산처럼 말없이 서 있고 오색 물감으로 물든 마음은 초록 풀잎 사이로 흐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전시를 ‘노아방주’에 대해 “오늘의 흥수는 물이 아니라 무관심과 분열, 생명 경시와 절망”이라며 “노아방주’는 심판을 외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시 탈 수 있는 희망의 배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전했다.

출품작들은 저마다 시를 썼고 그림은 과수봉 한 국화가가 맡았다.

곽 작가는 “일반인에게도 시를 공유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시를 제안했다”며 “회원들에게는 창작활동의 모티브가 되고 일반 시민들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7080 명곡, 뮤지컬로

‘노민호와 주리애’ 27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

‘모나리자’, ‘그대에게 전해주오’, ‘빙글빙글’... 7080 명곡들이 사랑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다.

죽크박스 뮤지컬 ‘노민호와 주리애’가 오는 27일 오후 7시 완도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완도 ‘문화가 있는 날’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익숙한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무대가 될 예정이다.

‘노민호와 주리애’는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적 정서로 풀어낸 이야기다. 배경은 젊음과 열기가 넘치는 사파이어 나이트 클럽. 그곳에서 열린 가면파티에서 노래를 부르던 노민호는 주리애를 만나 한눈에 마음을 빼앗긴다. 주리애는 사파이어의 사장 주봉진의 외동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노민호의 어머니 미향과 주리애의 아버지 주봉진이 오래전부터 암석 사이였기 때문. 미향은 주봉진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파이어 맞은편에 다이아몬드 나이트클럽을 열 계획을 세운다.

부모 세대의 갈등 속에서 노민호와 주리애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상황에 괴로워한다. 부모 세대가 품어온 상처와 삶의 무게, 자녀 세대의 순수한 사랑이 교차하며 무대가 전개된다.

작품의 핵심은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가요를 서사의 중심에 둔 죽크박스 뮤지컬 형식이라는 점이다. ‘모나리자’, ‘그대에게 전해주오’, ‘빙글빙글’, ‘태클을 걸지마’, ‘동지’ 등 1980~2000년대를 풍미한 명곡들이 극의 흐름을 이끌며 어르신들에게는 청춘의 기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부모·조부모 세대의 삶과 감정을 전한다.

노민호 역은 가수 한강이 맡아 진한 감성과 힘 있는 무대 에너지를 보여주고, 주리애 역은 뮤지컬 배우 신고은이 맡아 맑고 섬세한 음색을 선보인다. 여기에 이현우·방은희·김수연·김진철 등이 출연한다.

관람료 6000원,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천문학자 지웅배, 우주 속 나를 묻다

인문정신문화, 오늘 온라인 ‘한밤의 낭독자들’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다 보면 때로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수없이 많은 별과 시간의 층위 앞에서 작은 존재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천문학자 지웅배(사진)와 함께 ‘나’와 ‘우주’에 대한 질문을 나누는 사색의 시간이 마련됐다.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인문360°) ‘한밤의 낭독자들’에 13일 밤 9시 천문학자 지웅배가 출연한다. ‘한밤의 낭독자들’은 명사들이 각자의 삶에 담은 책 속 문장을 직접 고르고 읽으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온라인 라이브 낭독 프로그램이다.

‘우주먼지’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지웅배는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이자 유튜브 채널 ‘우주먼지의 협자타임즈’를 통해 대중에게 과학 이



웹소설을 낭독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프로그램은 인문360° 와 CJ ENM 사파언스스튜디오(SAPI)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한편 문화체육관 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인문360은 인문프로그램 운영과 학습 지원, 인문 콘텐츠 아카이빙을 아우르는 종합 디지털 플랫폼이다.

문예위 관계자는 “‘한밤의 낭독자들’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직접 고른 책 속 문장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청년들에게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